

국회 '온라인 의정활동' 바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모든 정치 일정 중단 원격 표결 허용 국회법 개정 필요성 제기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모든 정치 일정이 중단된 국회에 '온라인 의정활동' 바람이 불었다.

국회는 출입 기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폐쇄로 각 상임위원회 운영이 멈춘 가운데 28일 의원들은 보좌진들과 화상회의를 가지거나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화상회의로 '국회 기후변화 포럼 2020 국회 모의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가진 화상회의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당초 국회에서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하게 됐다. 2050 저탄소 발전 전략"을 놓고 여러 수강생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운영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폐쇄되면서 제도 채택 근무 중"이라며 "역시 채택 근무 중인 직원들과는 줌으로 화상회의를 했다. 지역위원회 당직자들과는 구글 도우(Dou)로 회의를 마쳤다. 처

을 겪는 생소한 환경이지만 코로나가 던진 언택트 문화에 저회도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 기자 간담회도 등장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썬' 생중계를 통해 퇴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사회를 맡은 강훈식 수석대변인 둘만 참석했다.

이 대표는 전남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의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퇴임 기자간담회는 기자들 참석 없이 비대면으로 릴레이 전화 연결을 통해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온라인 기자간담회 형식에 전화 연결이 잘못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기자와 전화연결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민주당 출입 기자가 아닌 동명이인의 사회부 출입 기자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내 전화를 끊고 서면 질문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대비해 국회 본회의도 원격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기후변화 포럼 2020 모의 토론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종성 의원 페이스북 캡처)

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본청 회의장에 모여서 하는 회의만을 허용하고 있어 원격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해 "원격회의나 투표는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며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는 지난 28일 의정실에서 '제4기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한 가운데 위촉식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위촉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도의회,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위촉

전북도의회는 지난 28일 의정실에서 '제4기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구성돼 의원의 윤리·행동강령의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며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도의회는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7조'에 근거해 2014년부터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3기 위원 임기 만료로 제4기 자문위원을 구성,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송지용 의장은 "제11대 의회 후반기 개원 때, 도의회 전체 의원이 도민께 청렴서약을 할 만큼

도의회의 윤리·행동강령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자문위원의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문위원들은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준영 위원(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준영 위원장은 "전북도의회의 윤리·행동강령 실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신임 국방장관에 한미연합작전 전문가... 전작권 총력 예고

문 대통령, 서욱 후보자 지명 비무장지대 GP 철수 등서 미군 협조 끌어내



이어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소통하며 연합대응 태세를 갖추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는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을 들었다.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가 늦춰지

고 있는 점 역시 서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리 군은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미래연합사령부 차원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내년엔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평가를 마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군 인사의 입국이 발발되고 훈련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완전운용능력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군 당국의 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벌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서 후보자의 향후 최대 중점 과제는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호남고속도로 확장 예타 통과 숨은 공신

민주 이원택 의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예타 대상 선정도 견인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전북도 정부부지사로서 있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 많은 사람들

과 신뢰를 쌓아온 것이 이번 예타 대상사업의 선정과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전북 김제·부안의 각종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제 공약사업인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예타가 통과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김제·부안의 각종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내기 위해 김제시장님과 부안군수님, 전북도지사님과 함께 노력해 왔던 것처럼 원팀으로 노력해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김제·부안의 영농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신산업 유치 등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김제·부안, 부안·김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이 같은 지역 현안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관해 관 계부처 장·차관 면담 등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효과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원택 의원은 "앞으로도 김제·부안, 부안·김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